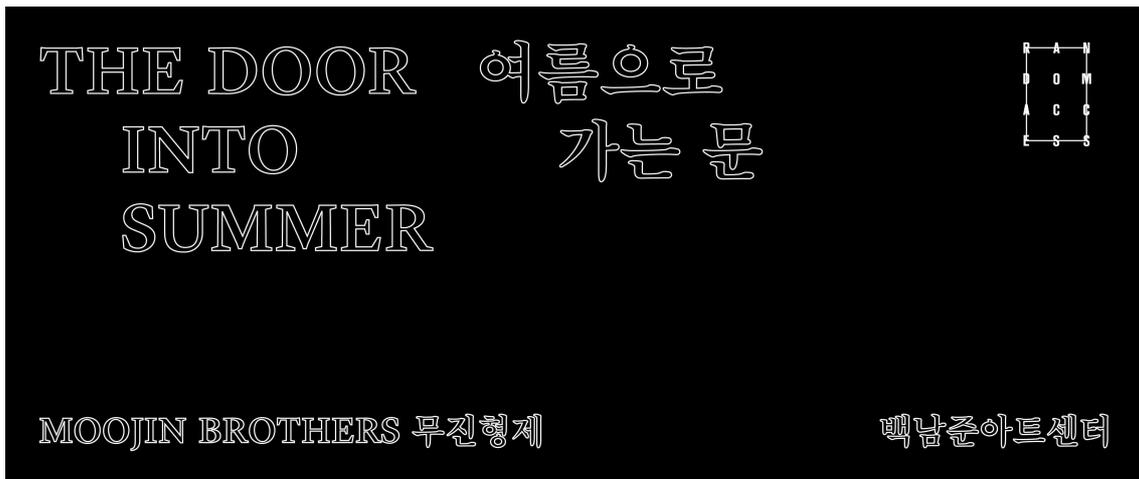


보도자료

제목	2018 랜덤 액세스 Vol.2 《여름으로 가는 문 <i>The Door into Summer</i> 》		
문의	- 전시문의 : 김선영(t. 031-201-8552, m. 010-4665-9290) - 취재문의 : 강연섭(t. 031-201-8559, m. 010-2906-1746)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로 다운로드		
배포	2018. 11. 05.	쪽수	총 4매

2018 랜덤 액세스 Vol.2

《여름으로 가는 문 *The Door into Summer*》



- ▶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위계를 해체
- ▶ 젊은 작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의 장 확대
- ▶ 젊은 작가들의 생각과 열정에 임의접속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가동
- ▶ 그 두 번째 프로젝트로 무진형제의 신작 <여름으로 가는 문> 선보여

■ 전시 개요

- 전 시 명 : 여름으로 가는 문 *The Door into Summer*
- 일 시 : 2018. 11. 8 (목) ~ 12. 9 (일)
※ 별도의 개막행사는 없습니다.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메자닌 스페이스
- 참여작가 : 무진형제
- 주최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 협 찬 : 산돌구름

■ 랜덤 액세스 Vol.2 무진형제 《여름으로 가는 문》 소개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서진석)는 2018 랜덤 액세스 두 번째 프로젝트로 무진형제의 《여름으로 가는 문》을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1층 메자닌 스페이스에서 개최한다. 무진형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에서 포착한 낯설고 기이한 감각과 이미지를 다양한 미술적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다채로운 예술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을 선보이는 미디어 작가 그룹이다. 이번 전시 《여름으로 가는 문》에서 무진형제는 동명의 신작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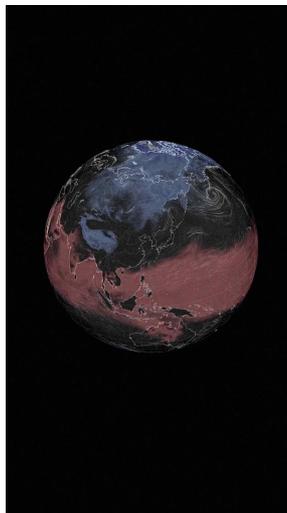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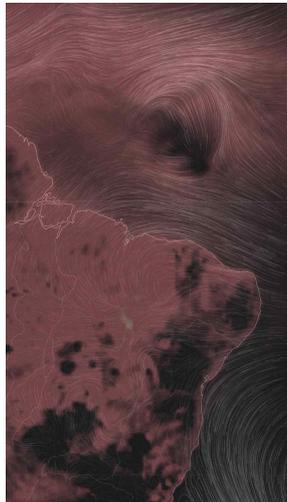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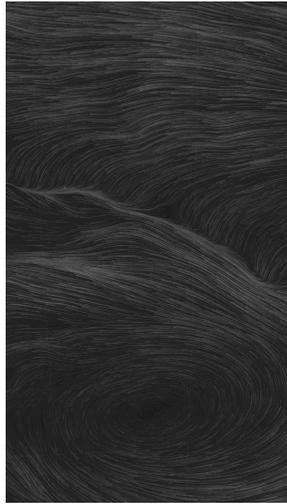
봄(生)이 지나 성숙의 계절 가을(收)이 오기 전, 성장의 시기인 여름(長) 한복판에서 자신은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매일 새벽 줄넘기를 하는 소년이 있다. 무진형제는 자신만의 속도로 제자리에서 줄넘기를 하며 치열하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 한 소년을 주목한다.

소년은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집 근처 공원에서 혼자 4,000개의 줄넘기를 하며, 세상이 만들어놓은 인식과 척도에서 벗어난 '무용(無用)해 보이는 짓'을 하고 있지만, 분명 자신만의 논리와 규칙 속에서 처절한 절망과 치열한 삶의 한 마디를 힘겹게 넘어가고 있다. 무더웠던 올 여름에도 소년은 여름의 열기도 있고 자신만의 속도로 제자리에서 줄을 뛰어 넘으며 치열하게 여름을 보냈다.

무진형제는 2채널 미디어 작업인 <여름으로 가는 문>에서 지난여름 무더위에도 쉼 없이 줄넘기하는 소년과 그 소년이 밭 딛고 서 있는 땅위를 가르는 그래픽으로 표현된 뜨거운 땅의 열기, 지구의 모습을 병치하여 보여준다.

하얀 격자 타일로 구성된 전시 공간은 사회의 인식과 척도를 상징하는 듯하다. 사회가 소년에게 공부와 기술배우기 등 마땅히 그 나이에 해야만 하는 역할을 지우는 것, 또는 지구를 정밀하게 쪼개고 나누어 경계를 짓고 분석하는 것은 바로 사회의 척도 같은 것이다. 이 하얀 격자 공간은 점점 깨지고 벗겨지는데, 그 깨진 틈새 사이로 균열의 이미지들이 밝게 빛난다. 무진형제가 조성한 이 공간에서 관람객은 흐트러짐 없이 보이는 세계상의 공간을 거닐며 균열들이 내뿜는 빛과, 그 속에서도 말뚝처럼 박혀 제 나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소년, 그리고 지구의 영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신만의 속도로 제자리에서 줄을 넘는 소년의 무용(無用)의 모습은 세상이 만든 인식과 척도의 문을 열고 우리가 추구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제안하고 있다.

■ 작품 <여름으로 가는 문> 소개



무진형제, <여름으로 가는 문>, 2018,
2 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컬러, 4분 30초

Moojin Brothers, *The Door into Summer*, 2018,
2-channel video, stereo sound, color, 4min 30sec

■ 작가 소개

무진형제는 정무진, 정효영, 정영돈 세 명으로 구성된 미디어 작가 그룹이다. 무진형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낯설고 기이한 감각과 이미지를 포착해 우리 삶의 새로운 지점을 조명하는 작업을 한다. 노동자, 작가, 청년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다양한 미술적 방식으로 재구성해 그로부터 다채로운 예술적 의미를 포착한다. 아울러 우리 삶에 깊이 감춰져 있던 신화나 전설의 이야기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역사적 탐색, 고전 텍스트의 재해석 등을 영상언어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백남준아트센터는 젊은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되기를 원했던 백남준의 바람을 구현하기 위해 백남준의 실험적인 예술정신을 공유하는 신진작가들을 소개하고 동시대 미디어 아트의 동향을 살펴보는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2010년과 2015년 그룹전으로 진행되었던 형식을 바꾸어 이음-공간, 메자닌 등 아트센터 곳곳에서 젊은 작가들과 임의접속 할 수 있는 새로운 포맷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본 프로젝트 제목은 백남준의 <랜덤 액세스>에서 비롯하였는데 <랜덤 액세스>는 백남준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1963)에서 선보였던 작품의 제목으로 오디오 카세트의 테이프를 케이스 밖으로 꺼내 벽에 임의로 붙이고, 관객이 금속 헤드를 자유롭게 움직여 소리를 만들어내게 했던 작품이다. 백남준의 <랜덤 액세스>처럼 즉흥성, 비결정성, 상호작용, 참여 등의 키워드로, 올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2018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는 김가람, 무진형제, 해미 클레멘세비츠 등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관객과 함께 삶의 좌표를 찾아보는 실험을 시작하고자 한다.

■ 관람안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7~8월 오전 10시 ~ 오후 7시)
※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휴관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